



우리 반 김홍도

글 : 차유진

그림 : 홍연시

출판사 : 리틀씨앤북

쪽수 : 244쪽

정가 : 12,000원

대상 : 초등 4~6학년

■ 책 소개

어려서부터 그림이 타고난 소질을 보여 강세황, 심사정의 제자로 그림을 배우게 되고, 중인 신분으로 벼슬까지 하게 된 김홍도. 한평생 그림에 열정을 바친 그는 예순 살이 되어 천식으로 앓아눕는 순간까지 한시도 그림을 잊지 않는다.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 삼도천에서 저승의 뱃사공 가아로를 만난 그는 저승에 가고 싶지 않아 묘수를 부린다. 가아로가 김홍도의 궤에 빠지는 바람에 저승의 장막은 가로막혀버리고, 화가 난 가아로는 김홍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가아로와 함께 이승으로 돌아가 술래잡기를 하자는 것. 가아로는 김홍도가 술래가 되어 이승에서 가아로를 찾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여기는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열두 살 소년이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김홍도는 가아로와의 술래잡기에서 이겨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될까?

키워드

인물, 위인, 김홍도, 예술, 그림, 화가, 미술, 조선시대

■ 작가 소개 <차유진>

사실 저는 '누구나 판독기'를 가지고 있어요. 생긴 건 휴대폰과 비슷한데요, 알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나 특징을 쓰고 그 사람 모에 대면 그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마에 '누구나 판독기'를 한번 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정보가 나오네요. 글 쓰는 걸 아주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애슬론 토봇』, 『엉뚱발랄 콩순이』, 『다이노코어』, 『젤리고』, 『정글에서 살아남기』, 『벅스봇 G』 등의 TV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썼고 『레너드 요원의 미스터리 보고서』 오디오북 원고를 작업했습니다. 또 『우리 반 다빈치』, 『우리 반 베토벤』, 『정재승의 인류 탐험 보고서』도 썼답니다.

■ 주요 독후활동

우리 반 김홍도	책 속으로	① 열두 살 김홍래가 된 김홍도 ② <송하맹호도>를 지켜라 ③ 가아로는 누구?
	토론&논술	예술이 필요한 이유
	창의융합	① 친구와 함께 그리기 ② 김홍도의 여러 작품 감상하기



독서 전 ① 제목, 표지, 머리말 살피기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책의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 (2~4) 『우리 반 김홍도』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단원 김홍도가 우리 반에 온다면?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등 여러 분야에 독보적인 작품을 남긴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
삶의 마지막 순간, 저승의 뱃사공 가야로를 만나 술래잡기를 하게 된다.
“술래잡기에 지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고?”
김홍도는 자신의 작품 <송하맹호도>를 지키려 미래에서 온 세 남자를 만나고,
이 시대의 예술혼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는데…….
열두 살이 되어 돌아온 김홍도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2. 뒷글의 내용을 보면 김홍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일에서 어떻게 평가되는 사람이었나요?

⇒

3. 김홍도가 현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

4. 밑줄 친 문장에서 가장 김홍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



독서 중 ① 김홍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 (1~3) 다음 글을 읽고 단원 김홍도에 대해 알아보시다.

내 이름은 김홍도다. 본관은 김해. 자는 사능, 호는 단원.
 1745년 경기도 안성 성포리에서 중인 출신인 아버지 김석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명한 선비이자 명필이며 뛰어난 사대부 화가인 표암 강세황 선생 아래에서 일찌감치 그림을 배워 스무 살에 도화서(조선시대 나라의 그림을 그리는 일을 관장하는 관청) 화원이 되었다.
 내 신분은 중인이지만 벼슬도 살았다.
 영조 임금님의 어진(왕의 초상화)과 그분의 손자인 정조 임금님의 어진을 그려서 벼슬을 받았고 이후 다시 벼슬을 내려놓고 돌아와 그림을 그렸다.
 <군선도>, <풍속도화첩>, <행려풍속도>, <단원도>, <금강사군첩> 등이 내 작품이다.
 그렇다.
 나는 조선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다.
 나는 초상화, 신선도, 사군자, 산수화 전부 능숙했으나 무엇보다 백성의 삶과 애환을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표현하는 속화(풍속화)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조선에서 가장 잘 그리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나는 그런 명예 따윈 관심 없었다. 오직 친구들과 벗하며 자연과 사람 속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다.
 내 나이 60세가 되던 해 제자가 사는 전주로 내려갔다가 그 해 12월, 전라도 감사 심상규의 부탁으로 부채에 매화 그림을 그려주고 거처로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때고 잠시 누워 있었는데…….

1. 위의 글을 읽고 다음 빈 칸을 채워 보세요.

이름	
자, 호	
직업	
남긴 업적	
가치관	

2. 김홍도가 가장 즐겨 그렸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나요?

⇒

3. 김홍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

※ 『우리 반 김홍도』를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말은 무엇이었는지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소제목과 쪽수	인상적인 내용이나 말



독서 중 ② 동양화의 여러 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나는 심사정 스승님으로부터 남종화 그리는 법을 배웠다.
 남종화는 흔히 남종문인화라고도 하는데 전문 화사가 아닌 선비들이 그리는 산수화를 말한다.
 스승님은 남종화의 대가이면서 남종화에 북종화의 양식을 섞은 절충화법의 대가였다.
 “남종화를 그리는 선비들은 자연을 그린 그림에도 성현의 가르침이나 그린 이의 고매한 정신을 담아야 한다.”
 “아, 그래서 남종화 그림들을 보면 신선이 살 것 같은 청아한 산과 강, 높은 덕을 쌓은 군자들이 머무르는 무릉도원이 많은 거군요.”
 “그렇지.”
 남종화는 주로 피마준법이라고 하는, 일정한 선을 부드럽게 여러 번 겹치고 수묵의 농담으로 은은하게 그린 붓질이 특징이다.
 “스승님, 그러면 북종화는 어떤 그림인가요?”
 “음, 북종화는 말이다.”
 북종화는 문인이 아닌 직업 화가들이 그리는 산수화를 말한다. 선과 농담으로만 그리는 남종화와 달리 북종화는 외형을 중시하고 채색을 넣으며 그리는 기술과 섬세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직접 보고 그린 듯한 사실적인 산과 강, 나무 그림이 많다. 주로 거칠게 도끼로 찍듯 붓의 면을 넓게 그린 부벽준법이 사용된다.
 남종화나 북종화는 중국 명나라 때 만들어진 화풍이며 특히 남종화는 조선 후기에 양반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1. 김홍도에게 남종화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은 누구인가요?

⇒

2. 남종화를 그리는 표현 기법과 그 기법에는 어떤 특징 있나요?

⇒

3. 위의 글을 읽고 남종화와 북종화를 비교하면서 다음 빈 칸을 채워 보세요.

	남종화법	북종화법
뜻		
표현 기법		
표현 기법의 특징		

※ 다음 그림은 심사정의 남종화와 북종화의 양식을 섞은 절충화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산수화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서 감상해 봅시다.



〈심사정 필 산수도, 국립중앙박물관〉

★감상하기

거대한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띠풀집 안에 앉아 있는 인물과 이곳을 향해 다리를 건너 지팡이를 짚고 오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 이 작품에서 심사정의 절충 화풍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 앞쪽 언덕 위에 있는 세 그루 나무들과 화면 왼쪽에서 화면을 압도하며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배치하고 산봉우리과 나무를 사이를 열은 안개로 처리하여 거리감을 조성했다. 이러한 구도나 공간 배치 방식은 절파 화풍의 영향이다. 또한 화면 앞쪽에 굵고 진한 선으로 바위나 산의 윤곽선을 강조하는 절파적인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44세부터 52세경까지인 그의 중기 작품에서 확인되는 기법이다. 한편 바위와 산의 표면 처리, 호초점에 가까운 미점의 사용은 남종화풍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심사정은 두 화풍을 무리 없이 잘 조화를 이루어 내었다.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열두 살 김홍래가 된 김홍도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저 멋진 그림들이 전부 내 솜씨가 아니라 형의 솜씨라고?
그랬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모두 형, 김홍도가 그린 것들이었다.
‘맙소사, 내 이름뿐만 아니라 그림 실력까지도 형이 다 가졌단 말이야?’
알고 보니 나, 김홍래의 그림 실력은 고만고만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우리 형은 미술학원도 한 번 다니지 않았지만 교내, 전국 대회 할 거 없이 나가면 모조리 상을 휩쓰는 미술 수재였다.
‘하늘이 준 실력을 갖추고 태어난 아이구만.’
어릴 적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우리 집안은 중인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내가 무반 관직에 나가기를 바라셨다. 우리 집은 한동안 벼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나는 무반 관직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았다. 오직 그림만 그리고 싶었다.
아버지는 결국 한탄하며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래, 하고 싶은 걸 해보거라. 재능을 속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 말씀에 나는 곧 강세황 스승님 문하로 들어갔다.
나는 내 손에서 태블릿 피시를 도로 빼앗아 게임에 열중인 형에게 물었다.
“형은 나중에 화가가 될 거야?”
“아니.”
형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나의 형 김홍도는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벽에 붙은 저 많은 그림과 상장은 전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성과였다.
“왜 그림을 안 그려? 엄청난 재능이 있는데?”
“……귀찮아서.”
“뭐? 귀찮아?”
“응, 귀찮아. 난 ‘아무것도 안 해’주의야.”
“재능을 썩히면 안 돼.”
“귀찮아. 귀찮아. 그리고 말 걸지 마. 너 때문에 죽었잖아!”
나는 우리 형, 김홍도가 몹시 못마땅했다.

1. 조선시대 김홍도의 아버지는 김홍도가 무엇을 하기 바라셨나요?

⇒

2. 김홍도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그림만 그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걸 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홍래가 자신의 형 김홍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곳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시점에서 100년 전 과거로 왔어.”
 “으아악, 그럼 아저씨들은 100년 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미래인이지.”
 “맙소사. 타임머신이라니.”
 나는 김홍도이던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 김홍래가 사는 시대에 와서도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편리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택배 기사 아저씨는 어떻게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하루 만에 갖다 주는지, 돈이 아닌 카드로 어떻게 버스를 탈 수 있는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전부 관찰하고 이해했다.
 그런 관찰은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다. 가아로가 택배 아저씨로 변신해 있을 수도 있고 버스 기사 아저씨로 변신해 있을 수도 있었다.
 현대인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책과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읽어 치웠다.
 그러다가 과학책에 푹 빠져버렸다. 과학은 무척 재밌었다.
 나는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놀라웠다.
 내가 김홍도이던 시절, 왕유의 시에 그림을 그린 <죽리탄금도>의 대나무 숲 위에 휘영청 뜬 보름달을, 또 작은 웅달샘에 그 보름달이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그려 넣은 적이 있다.
 나는 달을 그릴 때는 늘 몸을 정갈하게 씻고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곤 했다.
 그뿐 아니라 원형, 행성 이주 계획, 수소 자동차, 인공지능 컴퓨터 등도 놀라운 과학 기술이었다.
 내가 살던 조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김홍래의 몸으로 들어온 이후 이런저런 현대인의 삶을 공부하다 보니 과학 이야기까지 알게 되었고 타임머신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흠, 역시 100년 후에는 타임머신이 개발되는군요.”
 “맞아. 인간이 달에 닿은 지 꼭 100년 후인 2069년에 최초로 세 시간 전으로 되돌아가는 실험에 성공했어. 그리고 우리가 살던 시대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지. 100년의 시간을 이동하는 것쯤은 쉬워졌어.”

4. 위 글에서처럼 타임머신이 있어서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있다면 과거로 가고 싶나요, 아니면 미래로 가고 싶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5. 조선시대의 김홍도는 현대의 우주과학기술을 놀라워했어요. 미래에는 지금보다 어떤 것들이 더 발달되어 있을 것 같나요?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

6. 김홍도는 현대의 사람들이 재미있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있어서 재미있거나 이것이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혹시 <송하맹호도>라는 그림을 아니?”

“잘 알죠. 제가 그린 그림인…….”

아차차, 얼른 입을 막았다.

“아, 하하. 아무튼, 알긴 알아요.”

<송하맹호도>는 내가 그린 호랑이 그림이다.

굵은 소나무 아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꼬리를 치켜세우고 등을 잔뜩 웅크린 채 그림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모습을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호랑이는 한반도의 상징인 영물이다.

㉠ 말했다시피, 나는 우리의 산과 우리의 강과 우리의 나무를 좋아해서 우리 방식으로 산수화도 그렸고, 우리 민족의 생활과 애환을 담은 풍속화도 그렸다. 그리고 또 그리기를 좋아하는 게 있었다. 바로 우리의 동물이다. 호랑이, 고양이, 나비, 새 등 우리나라에 사는 동물도 그림에 담고자 했다.

나는 심사정 스승님 댁에 가서 문안을 드리고 나오다가 멀리 바위 아래 소나무 숲에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본 적이 있다.

눈에 형형한 불을 내고 울울이 솟은 털을 세우며 나를 노려보던 녀석은 슬그머니 일어나 어디론가 느릿느릿 사라졌다.

㉡ 그 후 말을 기르는 감목관 벼슬을 받고 경상도 울산에 머무르던 어느 날, 포수들이 잡아 온 호랑이를 살살이 살피고 눈으로 익혔다. 나는 호랑이 생김새를 꼼꼼히 기록하고 붓으로 여러 장 형태를 그렸다. 언젠가는 멋진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양으로 돌아온 나는 심사정 스승님 아래에서 그림을 함께 배운 내 친구 이인문에게 소나무를 멋들어지게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인문은 자타가 인정하는 소나무 그림의 대가였다. 나는 이인문이 그린 소나무 아래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를 그렸다.

7. 위 글에서 밑줄 친 ㉠의 내용으로 봤을 때 김홍도는 무엇을 좋아한 사람이었나요?

⇒

8. 위 글에서 밑줄 친 ㉡의 내용으로 봤을 때 김홍도는 호랑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 것 같나요?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송하맹호도>를 지켜라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검색해보니 <송하맹호도>는 호암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후세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런데 이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왜 <송하맹호도>를 언급하는 것일까?

“<송하맹호도>가 왜요?”

“그 그림은 지금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누군가에게 도난당해.”

이게 무슨 소린가?

내 그림이 일주일 뒤에 도난당한다고?

나는 너무도 놀라 켈룩, 사레가 걸렸다. 바나나 맛 우유가 목에서 넘어가지 않고 입으로 튀어나왔다.

“괜찮냐?”

F1이 내 등을 두드렸다.

“켈룩, 켈룩, 괜찮아요. 그런데 그 그림이 도난당하다니요?”

“오늘 날짜가 6월 20일이지? 27일에 도난당해.”

맙소사.

“그리고 100년 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시 나타나지.”

(나) 아무튼, 듣고 보니 검은 양복의 세 남자는 자기들이 사는 미래 세상에서 발견된 <송하맹호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때 나는 살짝 의문이 들었다.

그들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내가 살던 18세기 조선으로 단번에 가서 나, 김홍도를 만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힘들게 이 시대로 와서 환생한 김홍도를 찾는 것일까? 설사 환생한 김홍도를 찾았다 해도(지금 만나고 있지만) 김홍도가 이전의 기억을 잊어버렸으면 어찌려고?

그 질문을 하자 F1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런 생각도 했지. 네 말대로 단번에 김홍도가 살던 시절로 가서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더 편했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불가능해.”

“왜요?”

“우리 타임머신 기술은 한 번에 최대 100년까지만 이동할 수 있거든. 더 오랜 과거로는 갈 수 없다고.”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직 우리의 시간 이동 기술은 100년을 이동하는 게 한계야. 뭐, 우리보다 더 미래의 사람들은 500년, 1000년을 이동하는 타임머신을 만들겠지만 말이야.”

“맞아. 미래인들은 돈과 편리한 기술에만 관심이 있거든.”

1. (가) 글에서 홍래는 <송하맹호도>가 호암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왜 기분이 좋았나요?

⇒

2.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김홍도가 살던 조선시대가 아니라 김홍도가 환생한 현재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나)의 밑줄 친 문장처럼 돈과 편리한 기술에만 관심이 있다면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봅시다.

⇒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애야, 그러지 말고 도와줘. 이건 꽤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사는 미래는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매우 발달한 사회이지만 예술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 이 그림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인가?

F1이 계속 설명했다.

“네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미래는 돈만 밝히는 이기적인 사회야. 과학, 경제, 산업 등 돈과 연관된 분야는 최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문학과 예술학은 사라져가고 있어.”

“예술이 사라졌다구요?”

“미래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오직 ‘돈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친 탓이야. 게다가 인공지능에게 모든 걸 의존하다 보니 인간의 창의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 특히 예술품은 완전히 사라졌어. 그래서 미래의 아이들은 예술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단다.”

“뭐라구요? 예술품이 사라져요?”

“응.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점차 버려졌고 이젠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박물관에 작품들이 없어요?”

“인공지능이 거의 실물과 똑같이 보여주는데 뭐 하러 박물관에 원본을 보관하고 있겠니?”

세 양복을 입은 사나이들 말로는 미래에는 예술품이 없다고 했다. 있던 예술품도 모조리 폐기하는 바람에 박물관은 텅텅 비고 F1, F3도 할 일이 없어져간다는 말에 나는 부르르, 치를 떨었다.

그건 뭔가 크게 잘못도니 거다.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공기 없는 하늘이다. 또 바퀴 없는 자동차, 소금 없는 순대와 같다. 그리고 설탕 없는 도넛이다.

서양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위대한 예술은 언제나 고귀한 정신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예술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그럼 미래는 예술가들이 없어요?”

“없지. 예술이 실종된 사회야. 미래 아이들은 자연을 느끼는 법, 아름다운 예술품을 바라보는 법, 멋진 음악을 듣는 법,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법, 보람된 삶을 깨닫는 법을 알지 못해. 한마디로 예술이 원지 당최 모르게 된 거야.”

4. 이 글에서 미래 시대에 발달한 것과 사라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발달한 것:

사라지고 있는 것:

5. 왜 미래에서는 4번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

6. 이 글에서 미래는 예술이 실종된 사회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는 그렇지 않죠. 밑줄 친 것들 중에서 내가 경험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써 보세요.

⇒

※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음. 조선에서 이곳으로 왔을 때 내 작품을 포함해서 여러 예술품이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좋아했었는데, 100년 후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사라지게 된다니.

나는 미래인들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송하명호도>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예술품이야. 이 그림이 진품임을 증명해야만 그나마 미래의 아이들에게 예술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어. 이 멋진 그림을 눈으로 직접 봐야만 그림 속에 묻어 있는 엄청난 힘을 느낄 게 아닌가. 안 그래?”

옳은 말이다.

예술 작품이 후대에 전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다.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인간의 숨결을 느끼는 것.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 바로 인간다운 마음, 사랑, 우정, 행복, 진리 추구 등이다. 이런 인류의 보편성은 문학,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다. 통틀어 예술이다.

그리고 예술은 자연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술이 파괴된 사회라면 자연도 무사할 리 없다.

“아저씨들 시대의 자연은 어떤가요? 나무들이며 풀, 동물들 모두 건강한가요?”

“웬걸, 다 민둥산이야. 나무가 우거진 숲 같은 건 과거 사진에서나 볼 수 있어.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캡슐 건물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뿜어주는 정화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걸.”

7. 예술 작품이 후대에 전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8. 예술이 파괴된 사회라면 자연도 무사할 리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가아로는 누구?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F3이 가지고 있던 007가방을 열었다.
 거기에는 비단으로 싼 족자가 있었다. 그들은 족자를 조심스레 풀었다. 족자가 풀리면서 그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송하맹호도>의 상단, 이인문이 그린 힘 있는 소나무 모습이 드러났다.
 이 소나무 아래에 내가 그린 호랑이가 있을 터였다.
 털을 바짝 세운 채 등을 웅크리고 꼬리를 치켜세운,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튀어 나갈 것 같은 조선 호랑이다.
 내가 수만 번 붓질해서 호랑이의 모습을 묘사했고 그래서 털 한 올 한 올마다 힘을 느낄 수 있는 천의무봉의 작품!
 F3이 손을 빠르게 움직여 나머지 그림을 드러나게 했다.
 조금씩 호랑이의 털이 보이는데 싶더니, 맙소사. 호랑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호랑이 가죽옷을 입은 못생긴 사내가 손으로 브이자를 하고 있었다.
 “이, 이 남자는!”
 콧구멍이 동전만 하고, 수염은 제멋대로 삐죽삐죽, 입술은 7월 장맛비에 툭툭 부은 가지처럼 두툭하고, 이마에는 마맛자국이 꺾꺾 찍혀 있다. 게다가 코 옆에 커다란 반점, 그 점에 길쭉한 털도 하나 삐죽 자라 있고 앞니 사이에 시커멓게 먹칠이…….
 맙소사.
 이 그림은 그승의 배 위에서 내가 그린 뱃사공 가아로의 얼굴이었다.

1. <송하맹호도>는 어떤 그림이 그려진 작품인가요?

⇒

2. 밑줄 친 내용에서 묘사한 대로 남자의 얼굴을 그려 봅시다.

3. F3이 펼친 족자 속 그림에 그려진 남자는 누구인가요?

⇒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잘 들어라. 이걸 절대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다. 분명 호랑이를 눈앞에 두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붓을 놀려 형태를 연습하고 난 후 그린 그림이야. 김홍도 이전의 화가들은 가보지 않은 경치를 상상만으로 보기 좋게 그리는 걸 좋아했지. 하지만 김홍도는 절대로 허투루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 점이 김홍도 시대 화가들의 특징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걸 그린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자고로 그림이란 외형도 내면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

“……네.”

할아버지는 엄하게 말씀하셨다.

“요즘 아이들, 조상의 얼을 이해하려 들지 않아서 나는 무척 속상하다.”

완고한 할아버지구나, 싶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자꾸 훈계조로 줄줄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단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가 아닌 내면을 가꿔야 하는 법이다. 저 글씨나 그림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온 힘을 다해 쓴 글씨, 온 열정을 바쳐 그린 그림에는 힘이 서려 있단다.

슬슬 하품이 나오려 할 때였다.

“그 힘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지. 귀신도, 저승사자도, 염라대왕도 그 누구도 잡아가지 못해!”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하고 막혔다.

이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시는 박물관장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익숙한 어떤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 설마!

나는 몰래 ‘누구냐 판독기’를 꺼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름을 입력하고 ‘누구냐 판독기’를 할아버지 옆구리에 살짝 갖다 뒀다.

액정에서 곧 반응이 왔다.

[#조선의서예가 #조선의화가 #조선의평론가 #시서화삼절 #호는표암 #66세대장원급제 #영릉참봉 #사포별제 #병조참의 #한성부판윤 #한국적남종화 #성격간간 #제자를아낌 #김홍도스승 #환생자 #황세장으로환생 #강세황]

맙소사.

이분은 바로 내 스승님이신 강세황 대감이었다.

스승님이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환생한 것이다.

4. 김홍도 시대 화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5. 그림의 외형도 내면도 똑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6. 자신에게 ‘누구냐 판독기’가 있다면 누구에게 갖다 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뜰지 생각해 보세요.

⇒

※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는 물끄러미 내 그림을 바라보았다.

<송하맹호도>.

그 안에는 거칠고 단단하게 그린 소나무 아래 지금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사능’이라는 나의 낙관과 ‘표암화송’이라는 스승님의 글씨가 적혀 있다.

그때 나는 의미 있는 일을 이미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깐만……. 나,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거야?”

“저거.”

나는 손으로 벽에 걸린 <송하맹호도>를 가리켰다.

가아로는 영문 모를 눈으로 그림을 바라보았다.

“<송하맹호도>에 ‘표암화송’이라는 글씨가 새로 생겼잖아.”

“그런데?”

“그게 의미 있는 일이지.”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나?”

“F1이나 F3 같았으면 벌써 이해했을 거다. 설명해줄게. 잘 들어. 아마도 지금부터 저 <송하맹호도>를 보는 사람들은 ‘표암화송’이라는 글씨를 보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거야. ‘이상하다. 그림의 형태나 붓놀림을 보면 분명 소나무 그림의 대가인 이인문이 그린 그림인데 정작 낙관은 표암 강세황의 이름으로 쓰여 있네?’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어땠다고?”

가아로는 콧구멍을 후비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바보야. 사람들이 이제 저 미술작품을 허투루 보지 않고 이 ‘표암화송’이라는 글씨가 적힌 이면에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까, 상상하면서 볼 거란 말이야. 자고로 예술은 그래야 해. 내 작품을 보면서 상상하려 들고 그 안에 깃든 정신을 되새기는 것, 그게 바로 천재 화가 김홍도가 후대에게 바라는 거야. 나는 열두 살 김홍래가 되어 저 그림에 그걸 남긴 거라고.”

7. 김홍도는 현대의 사람들이 <송하맹호도>를 보고 어떤 점에서 의아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나요?

⇒

8. 김홍도가 후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상상하려 들고 그 안에 깃든 정신을 되새기는 것



독서 후 토론&논술_ 예술이 필요한 이유

※ 다음은 『우리 반 김홍도』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글을 읽고, 훌륭한 예술 작품이 후대에 계속 이어져야 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술 작품이 후대에 전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다. 작품 속에 녹아 있는 인간의 숨결을 느끼는 것.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다. 바로 인간다운 마음, 사랑, 우정, 행복, 진리 추구 등이다. 이런 인류의 보편성은 문학,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다. 통틀어 예술이다. 그리고 예술은 자연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술이 파괴된 사회라면 자연도 무사할 리 없다.

“아저씨들 시대의 자연은 어떤가요? 나무들이며 풀, 동물들 모두 건강한가요?”

“웬걸, 다 민둥산이야. 나무가 우거진 숲 같은 건 과거 사진에서나 볼 수 있어.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캡슐 건물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뱉어주는 정화된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걸.”

<p>예술 작품이 후대에 이어져야 하는 이유</p>	
<p>예술 작품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p>	



독서 후 창의융합_ 친구와 함께 그리기

※ 아래 그림은 <송하맹호도>와 <죽하맹호도>예요. 김홍도가 <송하맹호도>와 <죽하맹호도>에서 소나무와 대나무는 다른 화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호랑이를 그렸듯이 우리도 친구와 함께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각자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그려보세요.



<송하맹호도>, 호암미술관



<죽하맹호도>, 개인 소장

친구와 함께 그려봐요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blue border, intended for drawing or writing. It occupies most of the page below the instruction text.



독서 후 창의융합_ 김홍도의 여러 작품 감상하기

※ 다음은 김홍도가 백성의 삶을 그린 그림 모음집 <단원풍속도첩>을 감상해 보고 느낌을 말해 봅시다.



김홍도, 단원풍속도첩 <서당>,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 단원풍속도첩 <타작>,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 단원풍속도첩 <기와 이기>,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 단원풍속도첩 <어장>, 국립중앙박물관